

#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역할과 과제

수원화성과 행궁동 사람들의 도전을 중심으로

신중진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도시계획 전공  
jjshin@skku.edu

정지혜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수료, 도시계획 전공  
bono423@naver.com

- I. 머리말
- II. 도시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의 한계, 마을만들기의 등장
- III. 수원 마을르네상스와 마을공동체의 발달
- IV. 마을만들기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사점과 과제
- V. 맺음말

## I. 머리말

도시민들은 고도로 도시화된 사회와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지 도시를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 위치한 공간 정도로만 이해하며 사회·공간적 소속감을 점차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의 공간으로부터 소외되고<sup>1)</sup> 있다. 이러한 도시 안에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다운 인간관계와 소속감이 있는 지역사회의 삶을 보다 나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이루어내고 유지하고자 하는 실천활동을 전개하는 주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필요하다. '마을만들기<sup>2)</sup>'는 이러한 사람을 만드는 일이고, 그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장소를 지역마다 정체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가꾸는 일이다. 지역주민들의 공통적 관심사를 기반으로 삼아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마을만들기<sup>3)</sup>는 '운동'으로 시작되어 이제 행정이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마을만들기 활동은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화 과정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국토부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를 시작으로 하여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및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등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목표로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행정이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전국에는 마을만들기를 통해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마을, 지역<sup>4)</sup>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활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문제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자각과 참여를 통한 자발적 마을만들기도

---

1) 최병두, 「공동체 이론의 전개과정과 도시공동체운동」, 『도시공동체론』(한울아카데미, 2003).

2) 이 글에서 쓰인 마을만들기(Maeul-mandeulgi)는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를 소외시킨 도시계획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람(공동체), 장소, 이야기를 만드는 주민참여 도시 설계 및 계획적 측면으로 한정되어 있다.

3) 신중진·송승현,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추진주체의 관계구조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권 1호(2010), 295쪽; 신명호, 「도시공동체운동의 현황과 전망」, 『도시공동체론』(한울아카데미, 2003), 120-145쪽.

4) 공간적 규모 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리와 특성이 가장 분명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곳으로, 지역이란 공간은 단순한 지리적 단위가 아니라 지방정부, 주민 등 지역 주체가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자치공동체'로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조명래, 「지역공동체와 지역정체성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과 과제」, 국토연구원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공동체 형성전략 모색 토론회 자료집(2007).

있지만, 행정기관의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구성원의 참여 정도와 연계하여 공동체의 발달을 4단계로 구분한 연구<sup>5)</sup>에 따르면 공동체의 발달은 참여활성화 단계, 공동체성구비 단계, 주민자치적 단계, 수단체자치적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sup>6)</sup>,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구성원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해 사업을 연계시켜 활동하는 공동체성 구비 단계의 공동체로 발전하고, 스스로 마을환경 개선과 마을순환경제를 위해 노력하는 주민자치적 단계의 공동체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단편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의 진행은 특정한 이해를 가진 공동체만을 위한 사업으로 이해되기도 하여<sup>7)</sup>, 아직까지는 도시민들이 지역공동체를 자신이 소속감을 가지고 동일시하는 공간적 실체인 '우리 동네로 느끼고<sup>8)</sup> 주체성을 가진 참여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이해와 공감대의 부재로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거나 지역주민 다수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인 실정이다.

이 글은 이런 현실에 주목해서 최근 3년간 개발정책에 대한 반성하고 산업화·도시화로 잃어버린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범 시민운동으로의 '마을르네상스'를 진행하고 있는 100만 이상의 도시로서 수원(水原), 그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마을만들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팔달구 행궁동의 행보에 집중하고자 한다. 우선 수원의 도시화 과정과 이에 대응한 도시계획의 한계를 살펴보고, 도시계획의 반작용으로 나타난 지역공동체의 움직임과 함께 행정이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인 수원 마을르네상스를 만나 시작된 새로운 움직임이 행궁동이라는 지역단위에서 지역공동체 회복에 미친 영향과 한계를 진단한다. 이 글은 마을만들기가 사업 단위의 공동체를 넘어 지역사회에서 상생하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하는데에 의의가 있다.

5) 김찬동,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13-14쪽.

6) 표3 참조.

7) 주민참여를 강조하였지만, 실제로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는 제한적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참여가 왜곡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영아 외, 『시민참여형 도시정비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방안』(국토연구원, 2008)

8) 황익주, 「골목길과 광장 및 공원: 도시에서의 '우리 동네' 형성에 관한 인류학적 에세이」, 『건축』 49권 1호(2005), 74-76쪽.

## II. 도시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의 한계, 마을만들기의 등장

### 1. 수원 팔달구 행궁동

수원은 용인, 안산, 화성, 의왕에 접하고 경기 중남부에 위치한 도청소재지로 권선·영통·장안·팔달 4개 구, 40개 행정동과 56개 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팔달구는 수원의 위치적 중심이고, 도청과 시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위치한 행정적 중심이며, 수원화성과 수원천이 위치한 역사·문화·자연의 중심이다. 행궁동의 지명은 화성행궁에서 유래하였으며, 화성과 역사를 함께해온 교통·상업·금융의 중심지인 원도심 생활권이다. 면적은 1,562km<sup>2</sup>이고, 1만 3,758명(6,673세대)이 거주하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몇 차례 동의 통합이 이루어지다 장안동, 신평동, 남창동, 북수동, 매향동, 남수동, 팔달로1가, 팔달로2가, 팔달로3가, 영동, 중동, 구천동 등 총 12개의 법정동(35개 통, 196반)이 행궁동이라는 행정동으로 통합되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성곽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다양한 문화자원 및 시설이 분포한다.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정조로를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성곽과 함께 동의 서쪽을 둘러싸고 있는 팔달산이 자연녹지지역이며, 나머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고도제한을 받아 3층 이하 건물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 2.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본 수원의 도시화

수원의 도시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은 1789년 사도세자의 묘역 조성으로 수원의 구읍으로부터 도시가 이전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가 건설된 것에서 시작된다. 정조는 팔달산 아래로 읍치를 이전하고, 강력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한 양경(兩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원을 경제·교통·행정·군사의 중심지로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구읍 주민 319호가 신도시로 이주되어 719호, 약 5,000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구축되었다. 신도시는 명칭을 화성으로 고치고 유수부로 승격되었으며, 1794년부터 2년간은 5.74km의 성곽과 행궁 등 총 109개의 시설물을 포함한 화성을 축성하여



### 도1-수원 팔달구 행궁동의 행정구역

표1-수원의 인구 현황

구분	세대	인구(명)			세대당 인구
		합계	남	여	
수원시	428,957	1,152,029	579,676	572,353	2.7
팔달구	87,267	217,404	109,016	108,388	2.5
행궁동	6,673	13,758	7,221	6,537	2.0

출처: 통계로 본 수원(2013. 01. 31. 현재)

농업과 상업의 기반을 마련한 도시로 발전했다.

하지만 1800년 정조대왕의 서거 후 화성(華城)을 지키는 왕실 친위대인 장용외영이 폐지되는 등 화성진흥책이 퇴색되고, 1895년 전국의 337개 군을 5개의 등급으로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2등급으로 책정되어 화성은 수원군으로 격하되었으며, 양경의 위상에서 지방도시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후 경기도 감찰부의 서울 이전으로 수원군은 다시 한번 수원면으로 격하되었다. 일제강점기에 화성 행궁은 시설이 파괴되고 남은 것들은 일제의 관공서로 사용<sup>9)</sup>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한국전쟁에서는 문무와 성곽시설물이 파괴되어 오랜 시간 폐허 속에 방치되었다. 이런 가운데에서 수원역을 신설하여, 수려선·수인선이 개통되고, 도심지 가로 정비사업이 진행되어 유서 깊은 상점들이 사라졌다. 1944년에는

9) 행궁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낙남헌은 수원군청, 봉수당은 경기도립 수원병원(구 자혜의원), 북군영은 경찰서, 남군영은 토목관구 등으로 사용되어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

‘수원시가지계획’이 수립되고 수원 비행장 조성, 철도를 포함한 교통과 가로망의 발달로 1949년 수원읍에서 수원시로 승격된다.

이처럼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본 수원의 도시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2개의 축은 도시로서 근대화 과정을 거치는 수원의 변화와 수원화성에 대한 가치인식의 변화이다. 1960년대에 수원화성은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문화재(사적 제3호)로 지정되고 일제의 침략과 한국전쟁으로 훼손된 화성을 보수하는 데 도시계획적 대응을 집중하게 된다. 전쟁피해를 빠르게 회복한 수원은 1970년대 ‘국방문화유산 정비계획’ 수립과 함께 화성 및 화성행궁 복원 및 정화사업에 총 32억 원을 투입했다. 또 1990년대에는 ‘화성행궁복원 장기계획’을 수립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수산업대로 등 교통기반시설이 발달하고, 도 행정기관<sup>10)</sup>, 대형 산업시설<sup>11)</sup>, 대학 및 연구시설<sup>12)</sup>이 입지하게 되면서 인구가 급증하게 된 수원은 1984년 서수원과 북수원에 주거전용 지역을 신설하는 등 도시 확장이 이루어졌고 1988년에는 분구제를 실시했다. 1991년 인구 65만 명을 돌파한 수원의 새로운 택지개발 및 주거공급<sup>13)</sup>은 구도심(행궁동)의 주거기능 이탈 및 슬럼화를 가져왔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수원화성에는 관광객이 급증했으나 문화재 복원에만 집중했던 도시계획에는 주변지역의 활성화 전략이 부재했다. 이에 행정은 화성의 복원을 위한 ‘화성정비계획’, 문화재 주변지역의 높이규제, 경관축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경관기본계획’ 등을 수립해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정비 및 경관관리를 시행했다. 월드컵 개최와 함께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2002년에는 ‘화성주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화성사업소를 설립했으며,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LH공사와 화성 특별계획구역 개발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행궁광장을 조성하는 등 화성 주변구역의 정비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시설을 개발하여 수원화성 문화재의 지속적 유지관리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10) 1967년 경기도청 이전.

11) 1969년 삼성전자, 연초제조창(현 KT&G), 선경합섬(현 SK) 유치.

12) 1973년 아주대학교 설립, 1979년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설립.

13) 1991년 동수원(원천), 서수원(권선) 택지개발, 1993-1999년 동수원(매탄), 서수원(권선), 북수원(정자, 화서, 천천, 조원) 택지개발 사업 진행.

### 3. 도시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의 한계

인구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몇 차례 동의 통합이 이루어지다가 2007년 현재 구역으로 설정된 행궁동은 이후에도 역사문화도시로의 행궁동이 되기 위해 문화재 복원, 문화관광, 공공공간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수원화성 역사문화도시 기본계획' 등 도시계획의 대상이 되었으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장기간 재산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화성흥보관과 화성박물관, 주차장 등 관광자원화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서는 과정에는 거주권뿐만 아니라, 소음·매연·주택개량제한 등 주거환경의 질을 침해받았다. 2008년 오랜 규제로 노후화된 주거지역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던 화성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의 취소는 문화재를 사람보다 중히 여기는 도시계획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최고조로 만들어 행정과 주민 간 심각한 갈등을 유발했다. 한편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며 변경 수립된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은 특별계획구역 해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우선정비에 대한 내용과 주민참여를 통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내용 외에는 여전히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7대 핵심사업<sup>14)</sup>을 담고 있었다.

도시화에 대응한 많은 도시계획은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본 수원의 도시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재'와 '도시의 급성장'에 집중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구도심의 기존의 정체성 파괴, 슬럼화와 함께 지역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왔다. 광장과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과 대규모 부지개발은 옛길이나 골목 등 기존 도시조직의 맥락을 단절시키고 정체성을 잃게 했다. 또한 수도권 일원의 인구 집중과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신도심 개발 및 주택단지 공급은 구도심의 주거기능 이탈 및 상업기능 약화로 신도심과 구도심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각종 갈등을 불러일으켰으며, 개발로 인한 마을의 갈등은 지역 주민들의 소속감을 약화시켜 기존 공동체를 상실하게 했다.

또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도시계획은 장기간 문화재로 인한 고도제한 등으로 행궁동 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고, 수원화성 내 문화재로

---

14) 팔달산 회주로 정비사업, 행궁 앞 광장 조성사업, 수원천 정비사업, 역사유적 복원사업, 옛길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수원화성 문화콤플렉스 조성사업, 팔달로 보행광장 조성사업.

인한 도심 슬럼화가 가속화되어 주거지 생활환경이 낙후되는 등 삶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문화재 복원·관광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춘 대응은 재정부족 및 관련법 미흡으로 난항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써만이 아닌 주거지, 조선시대만이 아닌 근대유산까지 포함한 행궁동에 대한 가치인식이 부족해 지역과의 갈등을 야기했다.

#### 4. 마을만들기의 등장, 수원화성과 행궁동 사람들

행궁동에 대한 도시계획이 문화역사도시로의 이상(理想)과 꿈을 이야기했다면, 지역주민들에게는 현실(現實), 현안 문제의 해결로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했고, 이는 마을만들기의 형태로 등장했다. 행궁동 지역 내 1개 이상의 법정동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sup>15)</sup>마다 특별계획구역의 해제 보상 문제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마을공동체 및 지원조직의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각 마을들은 유사한 현안 문제도 있었으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 문제도 있어, 저마다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의 결집 양상과 마을만들기 활동도 같은듯 다르게 나타났다.

화성 행궁의 남쪽에 접한 남창동의 경우 수원역세권의 성장과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마을의 중심 거리인 행궁길이 쇠퇴하였고, 2005년에는 행궁광장과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이 철거되고 마을진입로가 폐쇄되어 진입로 확보를 위한 시장 면담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가 시작되었다. 쇠퇴한 행궁길과 그 이면에 위치한 옛길인 한데우물길의 공방, 식당주민들이 모인 행궁길 사람들(A1)과 수원 KYC, 지역작가들이 함께한 옛길 살리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푸른경기21의 도시대학 참여를 통해 마을의 미래를 계획했다. 또한 지역공동체를 배제한 채 문화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경제적 효과를 함께 나누지 못하는 축제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한데우물 축제를 개최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 활동은 쇠퇴한 가로에 활력을 일부 되돌리는 등의 효과가 있었지만, 행궁길의 상인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만들기

15) 이 글에서는 화성 내의 마을만들기 주체들의 활동범위인 법정동을 근거로 남창동, 신흥동과 장안동을 합친 신안동, 복수동, 남수동, 매향동, 팔달로 1·2가의 6개 마을을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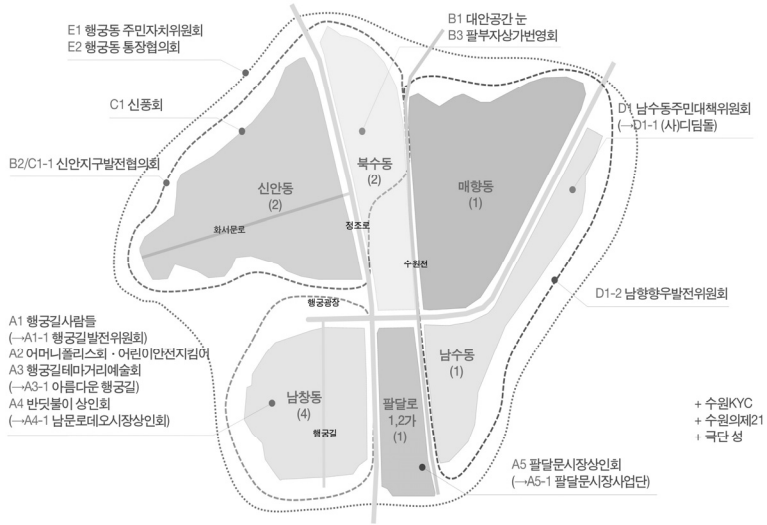


를 진행하다 보니 남창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욕구와의 갈등, 연결된 가로로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한계가 나타나게 되어, 주거지역의 어린이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머니폴리스회·어린이안전지킴이(A2), 행궁길과 이어진 남문로데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남문로데오시장상인회(A4-1) 등이 조직되었다. 상업지역이며 시장인 팔달문 시장이 입지한 팔달로 1·2가는 팔달문 시장만의 특성이 부족하고, 점포 앞 진열물품, 쓰레기 불법투기, 주차장 부족 등의 현안 문제로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인들은 상인회를 조직하고 상인교육 등을 통해 팔달문시장사업단(A5-1)을 출범시켰고,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의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을 통해 시장 마을만들기를 추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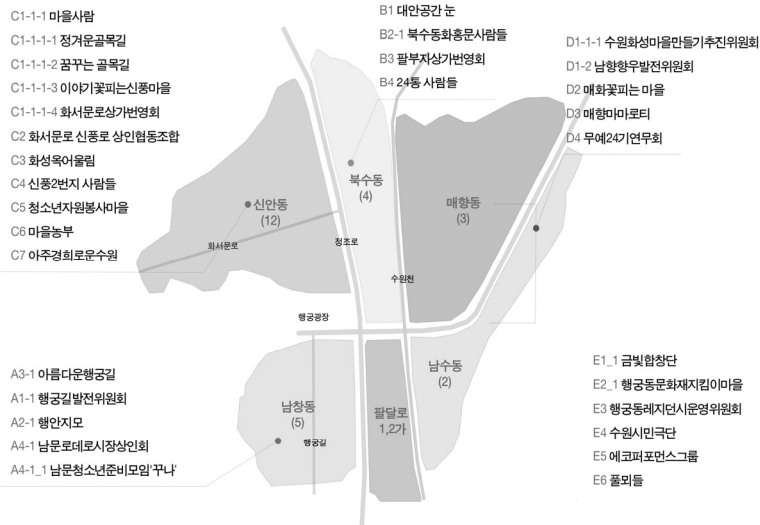
옛길과 필지가 복잡하게 얽혀 주거환경이 열악한 신안동의 경우는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점점 늘어가는 점집, 좁은 인도와 많은 통과차량으로 인해 보행자가 줄고 활력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컸고, 특별계획구역의 해제로 정비사업이 취소되자 낙후도가 심화되는 주거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만들기가 시작되었다. 신평회(C1)를 전신으로 하는 신안지구발전협의회(B2/C1-1)는 행궁동 출신의 여류화가인 나혜석의 생가 터와 행궁동 레지던시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제를 개최하였지만, 취소된 정비사업의 대안으로서의 지역의 환경 개선의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여전히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과 대안을 찾으려는 주민들 간의 갈등도 나타났다.

정조로와 수원천 사이에 좁고 긴 형상으로 입지한 복수동은 주택과 문구거리를 포함한 상가의 노후화, 거주 인구 및 세대 감소, 화홍문 방문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쓰레기·주차 문제 등의 마을 현안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2005년 대안공간 눈(B1)이 조성되어 지역의 문화예술거점이 형성되었고, 특별계획구역의 해제로 같은 문제를 공유하는 신안동의 신안지구발전협의회(B2/C1-1)와 함께 벽화를 통한 예술 프로젝트와 축제 등의 마을만들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복수동의 마을만들기는 지역의 문화예술 거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성곽 인근의 급경사 지역으로 겨울철 통행이 불편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남수동은 공가가 방치되고 방법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만



## 도2-마을르네상스 이전의 행궁동 마을공동체



## 도3-마을르네상스 이후의 행궁동 마을공동체

문화재로 인한 제한으로 주택개량이 어려운 상태였다.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골목 단위의 이웃공동체가 발달한 매향동은 김장을 함께하고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 활동이 있어왔다. 이 두 마을에서 마을 단위의 주민공동체가 조직화된 것은 북수동 신안동과 함께 화성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의 취소에 대응한 남수동주민대책위원회(D1)를 조직하면서부터였다. 이후

매향동을 포함해 남향향우발전위원회(D1-2)가 조직되었다. 남수동은 푸른경기21의 도시대학 참여를 통해 마을의 미래상을 그리고, 매향동은 골목길을 가꾸는 마을만들기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행궁동 전체를 대상으로는 행궁동레지던시(E3)가 철거 예정인 건물을 기점으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마을만들기 활동을 전개했으며, 행궁동 통장협의회(E2)와 주민자치위원회(E1)를 포함한 동 주민센터(E)에서도 행궁동 지도만들기, 아이디어 1,000선 모집 창안대회 등 마을의 자원과 과제를 발굴하는 마을만들기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같이 행궁동 사람들은 조직력과 역량을 갖춘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마을만들기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들의 노력이 남긴 성과와 과제들은 이후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사업과 함께 상승 작용을 하여 새로운 마을만들기 움직임의 자양분이 되었다.

### Ⅲ. 수원 마을르네상스와 마을공동체의 발달

#### 1. 수원의 마을만들기 정책, 마을르네상스

수원시가 수원화성과 행궁이라는 문화재에서 성곽 안에 살고 있는 행궁동 주민들로 초점을 옮기고 마을만들기를 통한 재생을 시도한 것은 민선 5기가 출범한 2010년부터이다. 수원시는 마을르네상스를 주민 스스로 문화·건축·환경이 모두 어우러지는 마을을 새롭게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디자인하고 가꾸어나가는 ‘시민공동체 운동’으로 정의하고, 사람 중심의 마을공동체 회복·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실천·새로운 미래 창조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개발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산업화·도시화로 잃어버린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여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2011년 수원화성 르네상스정책 T/F팀으로 구성된 수원화성발전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에서 제시한 문화재 중심의 7대 핵심 사업 중 일부를 중시하고, 행궁동 주민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의 재생(르네상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중간조직으로 민간영역(수원의제21추진협의회)에 위탁하여 세워진 마을르네상스센터도 공모사업과

교육사업 등을 통해 행궁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의 전개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수원 마을르네상스의 참여공동체는 크게 3개의 주체가 중심이 된다. 첫째는 자발적 사업 참여로 마을만들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지역의 '마을주민'이고, 다음은 행정 및 민간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고 정책 수립 및 제도적 지원을 기획·진행하는 수원시 '마을만들기 추진단', 마지막은 공모사업 현장지원, 주민역량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르네상스센터'이다. 각각의 참여주체들은 자신의 조직을 지원하는 서포터(supporter)가 있어 보다 안정적인 활동구조를 갖추어가고 있다. '마을르네상스센터'는 단체 단위의 '마을르네상스 파트너'와 개인 단위의 '마을르네상스 서포터'를 통해 전문가 풀(Pool)을 확보해 부족한 현장지원을 보완하고, '마을만들기 추진단'은 '행정협의체'와 '공무원 서포터즈'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부서 간 협력체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을 포함한 마을르네상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자문하는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외에도 구청과 동주민센터, 전문가 그룹, 시민사회단체,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 매스미디어 등 지역사회에 소속한 다양한 조직이 마을르네상스를 지원하고 있다.

수원의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보면 '교육 및 교류사업'과 '공모사업'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각 분야의 사업은 '주민역량강화',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마을르네상스 홍보', '마을자원 발굴 및 활용', '공모사업을 통한 마을만들기 활동지원' 등의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세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동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마을만들기를 분석하기 위해 각 분야의 사업들을 통해 마을르네상스 사업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마을만들기 키워드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우선 '교육 및 교류사업' 중 주민역량강화 사업 분야는 마을의 이해부터 마을계획을 세우는 과정까지 체계화된 '마을르네상스학교',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현장교류와 마을만들기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배우는 '맞춤형 주민교육' 등 '마을교육 및 인큐베이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해당 사업 분야가 아닌 공모사업<sup>16)</sup> 등 대부분의 마을르네상스 사업도

---

16) 공동체 프로그램과 시설 및 공간을 조성하는 정기·수시·기획 공모 외에도 주민모임 형성을 지원하는 씨앗공모 포함.

표2-마을르네상스 사업과 마을만들기 키워드

사업 분야		세부 사업명	마을만들기 키워드
교육 및 교류 사업	주민역량강화	맞춤형 주민교육, 도시대학, 마을르네상스 학교, 찾아가는 주민교육, 선진사례 벤치마킹	마을교육 및 인큐베이팅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마을디자이너 워크숍, 열린광장, 마을르네상스 파트너·서포터, 수원권 대학 네트워크	마을조직 및 네트워크
	마을르네상스 홍보	마을르네상스 웹진·저널·소식지·홈페이지·SNS	마을홍보
공모 사업	마을자원 발굴 및 활용	마을교육, 공모사업연계 마을조사 및 마을계획	마을 워크숍
	공모사업을 통한 마을만들기 활동지원	공모사업연계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프로그램
		공모사업연계 시설 및 공간 조성	마을 공간 및 시설

출처: 마을르네상스센터 홈페이지(<http://www.maeulcenter.or.kr>)

참여하는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사업 분야는 ‘열린광장’이나 ‘마을디자이너 워크숍’과 같은 세미나를 통한 전문가와 주민, 수원과 외부 전문가의 네트워크, ‘마을르네상스 파트너·서포터’와 같이 전문가가 마을조직 지원하는 네트워크, ‘수원권 대학 네트워크’와 같은 지역대학과 주민의 네트워크 등의 ‘마을조직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마을르네상스 홍보 사업 분야는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의 내용 및 정보, 마을만들기 동향이나 체험수기 등을 담은 마을르네상스 ‘웹진, 저널, 소식지’<sup>17)</sup>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마을의 소식과 공모사업 모니터링 내용을 발신해 참여주민을 포함해 마을만들기 비참여자나 외부에도 ‘마을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모사업’을 통한 마을만들기 활동지원사업 분야는 주민들 간의 교류활성화를 통한 도심 속 마을공동체 회복, 주민의견을 수렴한 장기적인 마을계획의 실천, 구도심 및 낙후지역의 점진적인 환경 개선을 목표로 만들어지는 ‘마을 프로그램’, ‘마을 공간 및 시설’로 나타난다. 이 2개의 키워드의 경우 실제로 시설 및 공간을 조성한 후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어 함께 고려해볼 만한 키워드이다. 한편 공모사업을 위한 마을자원 발굴 및 활용사업 분야는 마을교육이나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마을을 조사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수단인 ‘마을 워크숍’의 형태로 나타났다.

17) 소식지의 경우 현재는 저널에 포함되었다.

## 2. 지역공동체 발달을 위한 마을만들기 분석의 틀

지역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의 역할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공동체의 변화(발달)를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매티시티(Mattessich, 1997)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역량 구축에 초점을 두고 정의<sup>18)</sup>하고 있으며, 신예철(2012)은 지역공동체 역량 구축(강화)을 아른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의 사다리'에 따라 참여의 정도로 구분<sup>19)</sup>하고 있다. 이에 더해 김찬동(2012)은 주민참여의 단계에 따른 공동체의 발달 단계를 네 가지로 구분하여 표3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글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정의하기 위해 참여의 정도에 따라 공동체의 역량과 특성을 정리해 공동체의 발달 단계를 설정한 김찬동의 연구를 활용하고자 한다.

아른슈타인의 주민참여의 단계는 8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인 조작(Manipulation)과 2단계인 치료(Therapy)는 비참여 단계로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공동체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여 공동체

표3-공동체 발달의 4단계

공동체 발달의 단계	키워드	사업주제별 내용	아른슈타인 주민참여 단계
1단계 (참여활성화 단계)	공동체에 대한 애착	공동체에 대한 감성적인 결합으로 소속감 및 집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됨	3, 4, 5
2단계 (공동체성 구비 단계)	유대감, 호혜성, 운영체 형성	공동체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구체적인 사업과 연계시킴,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짐	6
3단계 (준주민자치적 단계)	운영체기능, 재원, 서비스 공급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생존권을 확보하고 지역가치의 재발견이나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단계	7
4단계 (준단체자치적 단계)	준대의성, 시설공급, 지역경영, 행정권한 이관	주민만으로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져 행정은 촉매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단계	8

출처: 김찬동,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표1.

18) Mattessich, P. and B. Monsey, "Community Building: What Makes It Work," Saint Paul, Amherst H. Wilder Foundation(1997).

19) 신예철, 「지역만들기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역량이 지속적 참여와 참여확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역만들기공동체와 지역문화활동공동체의 역량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2), 8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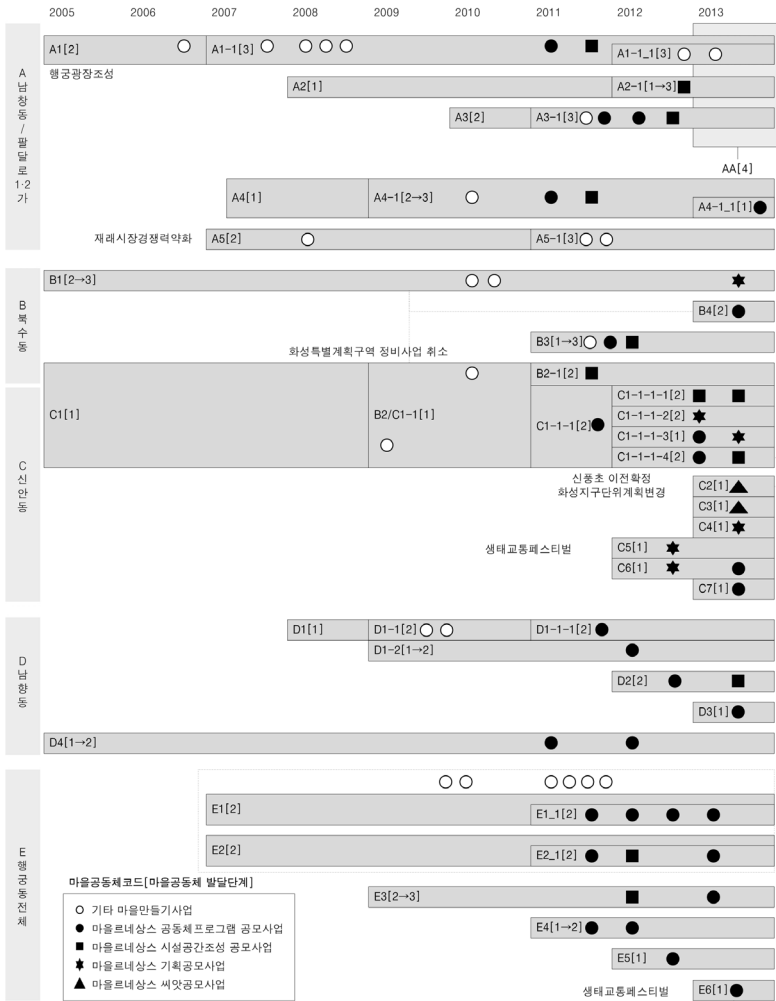
표4-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동별 추진 현황

관할구	동별 2011-2013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 현황(2013. 6 기준)										
장안구	파장동	울천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1동	조원2동	연무동	
85(10/37/38)	10(0/5/5)	14(2/4/8)	3(0/2/1)	7(1/3/3)	13(3/5/5)	5(1/3/1)	4(0/2/2)	13(2/5/6)	7(1/2/4)	5(0/6/3)	
권선구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금호동	입북동
56(12/29/15)	4(1/3/0)	6(0/3/3)	8(1/3/4)	2(0/1/1)	7(1/3/3)	4(0/1/3)	8(3/3/2)	7(2/3/2)	6(1/3/2)	11(3/4/4)	3(0/2/1)
팔달구	행궁동	매교동	매산동	화서1동	화서2동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인계동	고등동	
95(22/44/29)	48(10/21/17)	6(2/2/2)	6(2/3/1)	13(3/4/6)	7(1/4/2)	11(2/4/5)	2(0/1/1)	4(1/1/2)	12(1/3/8)	4(0/1/3)	
영통구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영통1동	영통2동	태장동	광고동	공모사업 수 총계 (2011/2012/ 2013)	
51(10/21/20)	10(2/4/4)	6(1/2/3)	4(0/2/2)	5(2/1/2)	5(0/3/2)	9(3/4/2)	6(1/3/2)	6(1/2/2)	1(-/1)		

출처: SSK학술회의 한국의 도시지역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자료집(2013)

발달 단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3단계인 정보제공(Informing), 4단계인 협의(Consultation), 5단계인 회유(Placation)는 행정의 정보제공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의견반영 등에 주민이 참여하고, 일정한 영향력이 인정되는 등 명목적이고 제도적인 참여 단계로 공동체 발달에는 ‘참여활성화 단계’로 정리했다. 6단계 협동관계(Partnership), 7단계 권한위임(Delegated Power), 8단계 주민통제(Citizen Control)는 주민권력, 주민주도가 이루어지는 단계이지만 각 단계의 공동체가 가지는 발달특성에 따라 행정과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성을 구비한 ‘공동체성구비 단계’,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기능을 가지고 일정한 정도의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준주민자치적 단계’, 공동체가 스스로의 대의기구와 집행기구를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여 활동을 기획하고 필요에 따라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준단체자치적 단계’로 정리했다.

다음으로는 분석대상인 행궁동의 마을공동체들이 위에서 선정한 공동체 발달의 4단계에서 각각 어떤 단계에 속하는지 구분하였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달한 마을공동체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히 현재시점에서의 마을공동체의 발달 단계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형성된 시기부터 현재시점까지의 발달 단계 변화를 정리했다. 또한 각 단계로의 전환에 미친 마을만들기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표장 1절에 수원 마을르네상스



#### 도4-행동동 마을공동체별 발달 단계와 마을만들기

사업을 검토해 도출한 ‘마을만들기 키워드’와 ‘공동체 발달의 단계’를 교차하여 분석하고, 각 키워드별로 서로 다른 공동체 발달 단계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을 정리했다.

### 3. 행동동의 마을만들기와 마을공동체

2013년 6월을 기준으로 수원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87개 사업 중 33%에 해당하는 95개 사업이 팔달구에서



추진되고 있고, 이 중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48개의 사업이 32개의 추진주체에 의해 행궁동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궁동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공동체를 소외시킨 도시계획에 대한 반작용으로, 마을르네상스 이전부터 기존 법정동을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 활동을 추진해오던 많은 마을공동체들이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받아들여 기존의 활동을 지속시키고, 조직을 확산 및 세분화시키며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도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행궁동에는 서로 다른 발달 단계의 공동체가 존재하고, 이들은 각각 혹은 협력하여 마을만들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행궁동의 마을르네상스는 마을르네상스 이전부터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속해 강한 응집력과 공동체 지속욕구를 가져 이미 공동체의 발달 단계 중 2단계인 공동체성 구비 단계에 온 공동체(A1, A3, A4-1, B1)에게 행정의 재원으로 동력을 지원했다. 그 결과 이전보다 좀 더 활발한 공동체 활동이 나타났고, 행정과의 파트너십을 넘어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기능을 가지고 일정 정도의 사업을 위탁받아 성과를 만드는 운영역량을 검증받은 준주민자치적 단계로 변화할 수 있었다.

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모임이 형성되었지만 여건의 변화로 모임의 정체성이 약해져 1단계인 참여활성화 단계에 있던 공동체(B2/C1-1, D1-2)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목표는 있어도 어떻게 활동 할지 모르던 공동체(A2)는 마을르네상스의 마을교육을 통해 공동체의 마을계획을 세우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발굴하여, 행정과의 파트너십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역량을 갖추 공동체성 구비 단계로 변화할 수 있었다.

마을르네상스는 마을 안에서 마을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여 참여활성화 단계의 새로운 공동체를 발굴(B4, C3, C4, D2, D3)하기도 하고<sup>20)</sup>, 생태교통페스티벌과 같은 외부적 변화에 대응한 참여활성화 단계의 새로운 공동체(C5-C7, E5-E6)의 형성 및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은 하나의 주체가 동시에 1개의 공모사업만 진행할 수 있고, 동 소속단체<sup>21)</sup>나 동을 대표하는 명칭의

20) 참여활성화 단계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아 도4에 표현하지 못한 새로운 공동체도 다수 존재한다.

21) 동 소속단체는 이른바 관변단체로, 각 주민센터마다 6-8개의 조직(예: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방

사용이 어려워 공동체의 분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예를 들어 C1-1-1의 경우 4개의 공동체로 분화되어 2012년과 2013년 각각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수행했으며, 구성원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E1\_1이나 E2\_1 처럼 특정 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분화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체가 되는 이전 공동체의 역량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공동체성을 구비한 단계에서 시작하는 공동체 발달의 특성이 나타났다.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속 하는 경우도 나타났는데, 2011년, 2012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2013년 (6월까지 수시공모 포함) 총 네 번의 공모에서 13개의 공동체가 2회 이상의 연속적인 지원<sup>22)</sup>을 받았다. 또한 행궁동에는 준단체자치적 단계로 발달하기 위한 협의체(AA)가 구성되기도 했는데, 같은 가로를 중심으로 법정동 단위를 공유하며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속하여 역량을 검증받은 준주민자치적 단계의 공동체들(A1-1\_1, A2-1, A3-1)이 함께 협의해 마을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대의기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또한 행정동 차원에서는 수원시에서 조직하고자 하는 마을만들기 협의회는 구성하지 않았지만,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마을로서 안심마을형 모델을 추진하며, 지역공동체 단위의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다.

## IV. 마을만들기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사점과 과제

### 1. 마을교육 및 인큐베이팅

참여활성화 단계로의 마을교육 및 인큐베이팅은 주로 지원센터나 행정, 시민단체 등이 주최하는 마을학교<sup>23)</sup>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

법기동대 등)이 존재한다.

22) 4회 연속 지원 추진주체 1개(E1\_1), 3회 연속 지원 추진주체 2개(A3-1, E2\_1), 2회 연속 지원 추진주체 10개(A1-1, B3, C1-1-1, C1-1-3, C1-1-4, C6, D2, D4, E3, E4).

이루어졌고,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마을계획처럼 대학이 기획주체가 되어 마을교육을 시행하기도 했다. 마을교육은 보통 마을의 자원 및 과제를 포함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마을의 미래상을 그리며, 마을의 과제를 해결하고 이상을 만드는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마을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 정체성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고, 마을의제를 발굴하여 공동의 문제의식을 형성하며 참여 동기를 마련한다. 물론 마을만들기 이전에도 잦은 왕래나 모임으로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거나 자발적으로 마을의 과제를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마을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형성(신규 마을조직 형성) 및 마을조직(신규 및 기존 조직)의 참여 확대에는 마을교육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원센터도 마을교육을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중 시설공간조성사업의 응모자격 및 준비가 되는 교육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에 지원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미지원주체들에 대해서도 사례답사와 마을르네상스학교, 전문가 파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주민모임을 가지고 싶은 공동체에 씨앗공모를 지원해 신규 주민모임을 활성화하는 인큐베이팅도 진행하고 있다.

공동체성 구비 단계로의 마을교육 및 인큐베이팅은 주로 공모사업의 운영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지원센터는 회계교육이나 맞춤형 주민교육을 통해 공모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여 행정과 협력해 공모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마을만들기의 방향이나 방법을 자문하여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강화했다. 마을르네상스학교와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마을계획, 공동체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활성화 단계의 공동체에 미친 영향과는 다르게 이미 형성된 공동체의 지속 욕구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우선순위와 단계를 두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축제나 벽화 등 공동체 프로그램 및 시설조성 공모사업의 운영은 주민에게 강의가 아닌 활동을 통한 경험으로 강한 응집력을 느끼고 그 자체가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될 수 있었다. 한편 주민신청을 통해 지원센터에서 파견된 전문가(파트너와 서포터 포함)는 마을만들기 진행 중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나 인력을

23) 행공동 사례에서 나타난 '수원마을학교', '마을르네상스학교', '푸른경기21 도시대학'을 '마을학교'로 통칭한다.

표5-지역공동체 발달과 마을교육 및 인큐베이팅

공동체 발달 단계	마을만들기 내용	해당 공동체	지역공동체 발달 내용
1단계 (참여활성화 단계)	수원마을학교	B3	- 마을의제를 발굴하여 공동의 문제의식 형성 - 마을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 정체성 이해와 애착심 고취
	마을르네상스학교	A2-1	
	푸른경기21 도시대학	B2, C1-1, D1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마을계획	B3, D1-2	
	씨앗공모 프로그램	C3	
2단계 (공동체성 구비 단계)	회계교육, 맞춤형 주민교육	공모사업 수행주체	- 행정과 협력해 공모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강화
	전문가 컨설팅		- 전문가와 함께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역량강화
	파트너·서포터 지원 및 모니터링	A2-1, C1-1-1	
	마을르네상스학교	A2-1	- 공동체 지속육구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마을계획 수립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마을계획	B3, D1-2	
공동체 프로그램, 시설 및 공간 조성	B3, B4, C1-1-1, D2, D4, A1_1, E2_1, E3	- 공동체 프로그램과 연계된 마을계획으로 정체성 및 사업 발굴 - 축제, 시설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강한 응집력 및 역량 구축	
3단계 (준주민자치적 단계)	열린광장, 마을디자이너 워크숍	A1-1, A2-1, A4-1, B1, E3	- 전문가 혹은 다른 공동체와 함께 기존의 활동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역량 확보
	파트너·서포터 지원 및 모니터링		
	전문가 컨설팅		
	공동체 프로그램, 시설 및 공간 조성		- 공동체 프로그램과 시설 및 공간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사업 운영의 역량을 학습하고 재정 확보능력을 배양

지원하고, 마을만들기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현장에 밀착된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했으나, 행궁동에만 2011년 2건, 2012년 1건으로 많지 않아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준주민자치적 단계에서는 마을르네상스 지원조직들 간의 워크숍인 마을디자이너 워크숍, 각 마을별 사업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간에 교류하는 열린광장 등 교류사업을 통해 교육 및 인큐베이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지원센터가 세미나를 기획하기는 하지만, 세미나에 참여한 주민, 행정, 연구 및 활동가 등이 토론을 통해 서로를 교육해 전문가적 역량을 확보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B1과 같이 마을안내소와 아트숍을 운영하는 마을기업(행궁숨씨)을 인큐베이팅하여 주민 스스로의

재정을 확보하거나, 일정 정도의 회비를 바탕으로 재정력을 확보하는 능력을 배양하기도 했다.

한편 현장교류에 속하는 선진사례 벤치마킹은 참여활성화 단계에서는 공동체 형성 및 마을만들기 동기부여, 공동체성 구비 단계 이후에서는 마을만들기 과정에 대한 이해와 추진과정의 문제점 파악 및 마을 적용방안 고민 등 공동체 발달 단계마다 서로 다른 교육 및 인큐베이팅 내용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마을만들기에서 마을교육 및 인큐베이팅은 각 공동체 발달 단계별로 다양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공모사업 자체를 제외한 프로그램의 참여도를 고려할 때에는 참여활성화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마을교육과 인큐베이팅 후 공동체가 형성되고 마을계획이 수립되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마을계획과 조직의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발굴, 선정, 양육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인큐베이팅 실현이 필요하다. 또한 공모사업을 위한 교육을 넘어 모니터링을 통해 각 단계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관한 다각적인 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준비의 과제가 있다.

## 2. 마을조직 및 네트워크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는 주민모임은 크게 세 가지 특성을 가지는 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마을의 물리적 범위(가로 단위, 블록 단위, 동(洞) 단위)를 중심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역단위공동체'<sup>24)</sup>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상인회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마을을 중심으로 하지만 영역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특정의 테마(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테마공동체'는 복지, 전통문화, 문화예술, 생태공동체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활동영역이 제한되지 않으며 특정 테마에 대한 전문기관, NPO 등의 조직인 '중간지원조직' 역시 청소년, 문화예술, 복지, 환경, 자전거 등의 테마를 가진 조직으로 나타났다. 참여활성화 단계에서 주민들은 소모임이나 조직을 구축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주민조직을 구성하는 데에는 이미 조직력이나 추진력을

24) 공간적 범위의 의미로는 보통 '지역공동체'로 서술할 수 있으나, 이 글의 머리말에서 정의한 '자치공동체'로서의 지역공동체와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단위공동체'로 바꾸어 표현하고자 한다.

가진 동 소속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조직의 리더나 실무자는 기존 조직의 리더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신규로 마을조직이 형성되는 경우 마을교육 및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새로운 리더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동체성 구비 단계에서 마을조직들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추진조직으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법인단체를 신청하고 고유번호증을 개설했다. 초기에는 이러한 과정 자체가 공모사업을 위한 공동체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지만, 공동체는 이 과정을 통해 조직의 정관 및 구성을 명확히 하고,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조직은 경험치가 축적된 리더와 실무자를 양성했고, 동(洞)·구(區)·시(市)의 지방자치행정 및 전문가 등 지역사회의 다른 조직들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또한 지원센터의 세미나 등 교류 프로그램이나 전문가를 허브로 주민조직 리더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포터 지원,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마을계획 등을 통해 지역의 문제 해결과 마을만들기 인력지원을 위한 주민과 지역대학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한편 A2처럼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주민모임에서 남창동의 종교단체, 점포주인, 일반주민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 구성원을 포함하는 주민조직(A2-1)으로 확대되거나, A4-1이나 B1처럼 청소년이나 마을기업 등 특정 구성원이나 분야로 분화되는 경우, C1-1-1처럼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개별 조직(C1-1-1-1-C1-1-1-4)으로 세분화되는 등 형성된 공동체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준주민적자치 단계에서 주민조직은 마을만들기 사업 경험을 통해 전문성과 주체성을 갖추면서 직접 마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 및 시민단체, 전문가를 활용하여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유지 관리하는 등 공동체의 활동 결정기구와 집행기구를 활용해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AA와 같이 남창동이라는 같은 법정동을 공유하는 마을공동체들이 다양한 마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는 모임의 필요를 수용하여 자생적으로 마을협의체를 조직해 네트워크 형태의 마을조직의 진화가 일어난 경우도 있었다.

마을조직 및 네트워크 측면에서 볼 때 아직 전문가와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는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관련 주제를 공유하는 전문가들이 기존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으로 차별화된 마을만들기를 진행하는 효과

표6-지역공동체 발달과 마을조직 및 네트워크

공동체 발달 단계	마을만들기 내용	해당 공동체	지역공동체 발달 내용
1단계 (참여활성화 단계)	주민모임 및 주민조직 구성	1단계 해당 공동체	- 공유공간이나 공동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주민 모임 형성 - 공동의 테마(관심사)를 가지는 주민모임 형성 -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주민모임 형성 - 이미 조직력이나 추진력을 가진 동 소속단체 활동 활발
	리더 및 실무자 양성		- 기존 조직의 리더가 역할 수행 - 마을교육 및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낸 새로운 리더 등장
2단계 (공동체성 구비 단계)	공모사업 추진조직 구성	2단계 해당 공동체	-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단체 신청 및 고유번호증 개설 - 조직 정관 마련
	리더 및 실무자 양성		- 공모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경험을 통해 리더와 실무자를 양성
	센터를 허브로 네트워크 구성		-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센터나 지방자치행정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성 - 센터가 제공하는 세미나 등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네트워크 구성
	조직 세분화 및 확대	A2, A4-1, B1, C1-1-1	- 기존 조직구성원 외에 다양한 지역공동체 구성원을 포함하는 조직으로 확대 -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개별 조직으로 세분화
3단계 (준주민자치적 단계)	주민조직 운영	3단계 해당 공동체	- 공동체의 활동 결정기구와 집행기구 등을 조직하고 지속적으로 운영
	주민조직 간 협의체 네트워크 구성	AA(A1-1_1, A2-1, A3-1)	- 같은 법정동을 공유하고 마을만들기 활동을 전개하는 주민조직 간 네트워크 구성 - 주민조직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사결정 - 주민 스스로의 자치 시스템 운영

를 기대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주체와 범위를 가지는 네트워크의 형성은 공동체 활성화에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동의 경우 행정이 중심이 되어 동 단위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주민자치 실현 및 체계적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마을계획의 관리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 마을만들기 협의회는 조직되지 못했다. 이미 협의회가 수용해야 할 많은 마을조직과 활동이 있는 행정동이고, 공모사업이 지속된다면 끊임없이 마을조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각각의 활동이 지역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협의회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동(洞)이라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마을만들기 상호 지원 및 연계 피드백이 용이한 협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3. 마을 워크숍

마을 워크숍은 마을교육의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거나 공모사업의 진행을 위한 수법으로 활용되고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동체의 발달 단계 및 마을만들기 과정에 따라 워크숍의 내용은 변화했다. 참여활성화 단계에서 활용된 마을걷기 워크숍, 이미지카드게임, 마을구상 워크숍은 마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동체로의 소속감 및 이상을 가지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마을걷기 워크숍에서는 어른, 어린이, 노인 등 다양한 참여자의 시각으로 마을을 함께 돌거나 인터뷰를 통해 마을의 과제와 자원 등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것을 공유하는 마을지도를 만들었다. 이미지카드게임은 주민이 표현하기 어려운 마을의 이상향을 이미지카드로 작성하여 목표로 하는 마을의 이미지를 구상하고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다. 마을이야기 인터뷰 및 조사 워크숍은 마을의 인물과 이야기, 역사를 수집해 정체성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성 구비 단계에서의 마을 워크숍은 구체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의 아이টে을 기획하고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마을르네상스 이전에 행궁동(E)에서 실시한 아이디어 창안대회 등 마을만들기 사업의 대상이 되는 마을의제를 찾고 마을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워크숍이 나타났다. 마을의제의 단계별 실행계획이 되는 마을계획 워크숍을 진행한 공동체(A2-1, B3, C1-1-1, C1-1-1-2)도 있었는데, 마을 워크숍에 참여한 공동체 구성원의 지역사회 대표성 미확보 등의 과제가 제기되었다. 좀 더 주체적으로 변화한 공동체는 마을만들기의 대상이 되는 공간의 사진을 활용하여 사진 위에 주민이 바라는 장소 이미지를 그려보는 공간설계 워크숍과 벽화나 환경조형물을 직접 디자인하는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전문가나 행정과 협동하여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로 구체화하고,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보완했다. 디자인 워크숍이 참여활성화 단계나 공동체성 구비 단계의 다른 워크숍과 연동되지 않고 별개로 실시된 경우는 주민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전문가나 단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 마을만들기 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참여이해관계자의 역할과 비중이 바뀔 수 있는 워크숍이 과제로 나타났다.



표7-지역공동체 발달과 마을 워크숍

공동체 발달 단계	마을만들기 내용	해당 공동체	지역공동체 발달 내용
1단계 (참여활성화 단계)	마을걷기 워크숍, 마을 이야기 인터뷰 및 조사	A2-1, B3	- 다양한 워크숍 참여자의 시각에서 마을의 과제와 자원 등 마을의제 발굴, 공유 - 마을의 인물과 이야기, 역사를 수집해 정체성에 반영
	이미지카드게임	A2-1	- 마을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구상하고 공유
	마을구상 워크숍	D1	- 마을의제를 통해 만들고 싶은 마을의 모습을 구상
2단계 (공동체성 구비 단계)	마을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정하기, 마을계획 워크숍	A2-1, B3, C1-1-1, C1-1-1-2, E	- 마을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의 마을만들기 사업 발굴 -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단계별 실행과 수정을 위한 마을계획 수립
	공간설계 및 디자인 워크숍	A2-1, D2	- 전문가나 행정과 협동하여 마을의 시설이나 공간을 설계 및 디자인
	마을실태조사 워크숍	E2_1	- 마을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과의 연계에 필요한 실태조사 진행
3단계 (주민자치적 단계)	공간 및 시설만들기 워크숍	A2-1, B3	- 마을주민의 자발적 봉사를 통한 마을 환경 개선 서비스 공급

주민자치적 단계에서는 디자인한 내용을 시공하는 시설 및 공간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실제 목공, 벽화, 식재 등에 참여하며 자발적 봉사·재능기부를 통해 마을의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했다.

#### 4. 마을홍보

마을르네상스 이전에도 행궁동에는 많은 마을조직이 있었고 이들의 마을만들기 활동이 있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정책적인 홍보의 목적도 있었지만, 마을르네상스를 계기로 활성화된 '마을홍보'는 이렇게 숨겨진 마을의 이야기를 발신하고, 발신된 내용을 본 다른 이들이 마을을 인정하고 마을의 이야기를 회자하는 것에서 마을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마을홍보 수단은 공동체 발달 단계에 따라 크게 차이 나지 않았지만, 지역공동체 발달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온라인 홍보의 경우 참여활성화 단계에서는 행정이 마을공동체에게

표8-지역공동체 발달과 마을홍보

공동체 발달 단계	마을만들기 내용	해당 공동체	지역공동체 발달 내용
1단계 (참여활성화 단계)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웹진·블로그 등)	마을르네상스센터	- 주민에게 마을만들기 정보발신 - 주민의견 반영 - 모니터링 등 DB 축적
	마을소식지	C5, A4-1	-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 확대 - 공동의 문제의식 공유
	마을축제/공연	A4, C1-1-1-3, E8, E4, E5	- 참여의 동기부여 - 공동체 활동 전파
2단계 (공동체성 구비 단계)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웹진·블로그 등)	마을르네상스센터, B1	- 모니터링 등 DB 축적 - 지역사회 비참여자들이나 외부인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공동체 지속육구 전파
	마을소식지	B1, A4-1	
	마을축제, 전시회, 공연	A1-1, A4-1, A5, B2/C1-1, C1-1-1-1, C1-1-1-4, D1-1-1, E1_1, E4, E3	- 구비된 공동체성의 발현 - 공동체 활동성과 홍보 - 공동체원 간의 소통의 장 마련으로 유대감, 응집력 강화
3단계 (주민자치적 단계)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웹진·블로그 등)	마을르네상스센터, B1	- 모니터링 등 DB 축적 - 마을방문객 증가를 통한 자원마련
	마을소식지, 마을(안내)책자	B1, A3-1	- 마을의 점포나 체험 등을 안내 홍보하여 자원마련
	마을축제	A1-1, A5-1, B1	- 마을의 경제적 이익창출 - 복지적 측면의 지치서비스 공급
전체	공모사업 결과보고서	공모사업 수행주체	- 모니터링 등 DB 축적 - 단계별 공동체 활동 및 과제 점검
	마을르네상스 저널, 소식지	마을르네상스센터	- 마을이야기 발신 및 발굴로 정체성 확인 - 정책동향, 사례, 체험수기 등의 정보를 제공해 공동체의 역량강화 지원
	마을르네상스 주간행사, 마을만들기 도서	마을르네상스센터	- 단계별 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 지원 - DB 축적 및 내·외부 네트워크 형성 매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현황 및 일정, 관련 행사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공동체성 구비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비참여자들이나 외부인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공동체의 지속육구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원센터와 시·구·동 행정이 해당 마을만들기 내용을 각자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게시하여 누적된 게시물은 모든 단계에서 홍보와 동시에 마을만들기 활동의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소식지의 경우 참여활성화 단계에서는 C5의 청소년기자단의 신문처럼 마을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공동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역할을 했고, 공동체성 구비 단계에서는 A4-1의 소식지처럼 지역사회 비참여자들에게 공동체 활동을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확산하는 역할을 했다. 준주민자치적 단계에서 마을소식지는 마을이나 공동체, 시설의 안내책자 형태로 제작되어 마을의 점포나 체험 프로그램 등 마을자원을 홍보하여 자발적 자원마련에 기여하는 역할을 했다. 마을축제는 참여활성화 단계에서는 공동체 활동의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전파하는 역할로 나타났고, 공동체성 구비 단계에서는 구비된 공동체성을 발현하고, 공동체 활동성과를 전시나 공연 등으로 공유하고 즐기며, 공동체원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유대감이나 응집력을 강화하는 매개로 활용되었다. 준주민자치적 단계에서 마을축제는 지역공동체를 고려하지 못한 행정주도 축제에 대한 대응으로 진행된 A1-1의 한테우물축제, A5-1의 능수벚꽃축제, B1의 요리콘서트와 같이 마을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노인의 문화나 복지적 측면의 자치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공동체 발단 단계와는 별도로 공모사업 수행주체에 의해 작성되는 공모사업의 결과보고서는 단계별 공동체 활동 및 과제를 점검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되고 있으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 마을만들기 기록 및 홍보인력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도 나타났다. 마을르네상스 저널 및 소식지, 마을만들기 주간행사, 마을만들기 도서 등은 서로 다른 마을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홍보하고 사례정보를 제공해 내·외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공동체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5. 마을 프로그램

행궁동에서는 2011년도 9개, 2012년도 9개의 공동체프로그램이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을 통해 운영되었고 2013년에는 6월 기준 10개의 공동체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마을만들기·마을안내자·환경 및 생태에 대한 '강의교육', 사진 '전시회', 거리 홍보책자·활동결과보고서 '인쇄 및 홍보물 발행', 생활인문강좌·무예·기자학교·음식만들기 등

‘체험교육’, 지명유래 축제인 한테우물 축제와 테마형 축제인 전통문화마을축제·문화예술제 등 ‘축제’, 음악회·뮤지컬·퍼포먼스 등의 ‘문화공연’, 디자인·마을걷기 워크숍·마을지도만들기·설문조사 및 인터뷰·마스터플랜만들기 등 ‘마을조사 및 계획과정 참여프로그램’, 사진거·무예시범 등 ‘주민조직(소모임) 프로그램’, 요리콘서트·별별예술프로젝트·아트마켓 등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이 혼합된 ‘혼합프로그램’ 등이 나타났다. 마을만들기 과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된 프로그램은 공동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참여활성화 단계에서 공모사업의 형태는 아니지만 통학안전지도·거리청소와 같은 ‘생활운동프로그램’은 참여하는 주민에게 공동체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길러주었다. 공동체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된 강의교육과 전시회, 문화공연프로그램은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참여를 유도했다. 그리고 축제프로그램은 실제로 주민들의 교류를 활성화 시켜 공동체를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체험프로그램은 나혜석(C1-1-1-3)과 같은 지역의 인물에 대한 인문학교육 및 체험으로 지역 정체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소모임 프로그램은 공동체 생활문화를 공유하는 동아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마을조사 및 계획과정 참여프로그램은 이후 마을만들기 활동의 기초를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

공동체성 구비 단계에서 강의교육프로그램은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마을을 알릴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게 했다. E1-1의 합창과 같은 문화공연프로그램은 마을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직접 합창공연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참여활성화단계에서의 축제와 체험프로그램에서 체험자였던 주민들은 공동체성 구비 단계에서는 축제와 체험의 진행자가 되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청소년에게 이를 전파하는 등 인적자원 육성에도 힘썼다. 이 단계에서의 소모임프로그램(C1-1-1)은 골목대장을 중심으로 마실 모임을 만들어 잃어버린 골목 공동체 문화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였고, 마을조사 및 계획과정 참여프로그램은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사업과 연계된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준주민자치적 단계에서 전시회, 문화공연, 축제프로그램은 마을만들기로 만들어진 공간 및 시설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에 문화서비스를

표9-지역공동체 발달과 마을 프로그램

공동체 발달 단계	마을만들기 내용	해당 공동체	지역공동체 발달 내용
1단계 (참여활성화 단계)	생활운동 프로그램	A2, B3	- 통학안전지도, 거리청소 등 생활운동으로 지역공동체와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배양
	강의교육 프로그램	C6, E6	- 글쓰기, 에너지생활화, 생태 교육으로 지역과 공동체 생활에 관한 관심 유도
	전시회/ 문화공연 프로그램	A4-1_1, B1, C1-1-1-3, E4, E5	- 음악회, 전시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유도 - 사진전을 통해 마을과 마을공동체를 인지
	축제 프로그램	A4, C1-1-1-3, C7	- 축제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기회 제공 및 교류 활성화
	체험교육 프로그램	A2-1, D4, C1-1-1-3, C4	- 지역의 문인, 예술가에 대한 인문학교육 및 전통 무예 체험으로 지역 정체성 인식
	주민조직 (소모임) 프로그램	C6, E5	- 자전거, 기타, 퍼포먼스 등 취미를 공유하는 공동체 소모임 형성 - 공동체 생활문화 형성
2단계 (공동체성 구비 단계)	마을조사 및 계획과정 참여 프로그램	B3, C1-1-1-3, E	- 주민인터뷰 등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 고양 - 마을만들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역량 강화 - 유사한 환경의 마을사례 답사로 공동체 활동의 동기부여
	강의교육 프로그램	E2, D2	- 지역의 역사, 문화재, 환경 등에 대한 교육으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자부심 가짐 - 마을안내자 교육을 통해 마을자원과 공동체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소개할 수 있는 역량 구축
	전시회/ 문화공연 프로그램	C1-1-1-2, E1-1, E4	- 마을 옛 사진 전시로 지역공동체의 유대감 형성 - 합창 등 고령자 공동체 문화형성 - 뮤지컬로 마을만들기 학습 및 이해
	축제 프로그램	A1-1, A5, B2/C1-1, C1-1-1-1, C1-1-1-4, D1-1-1	- 축제시범운영으로 운영체계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결집 - 지역정체성 및 고유한 공동체 문화의 전파 - 공간 및 시설조성, 프로그램 운영 활동내용 홍보
	체험교육 프로그램	A2-1, B1, C1-1-4, E, E2-1, E3, D1-1-1, D4	- 문화예술체험교육으로 주민 솜씨 발굴 및 문화상품, 지역상징물 제작 - 일부 구성원 체험자에서 체험진행자로 변화 - 지역 청소년에게 체험을 제공해 공동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인적자원 육성
	주민조직 (소모임) 프로그램	C1-1-1	- 공동체 간 마실모임, 골목대장 만들기로 골목을 단위로 하는 공동체 소모임 조직
	마을조사 및 계획과정 참여 프로그램	A2-1, B3, E2-1	-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사업과 연계된 마을계획의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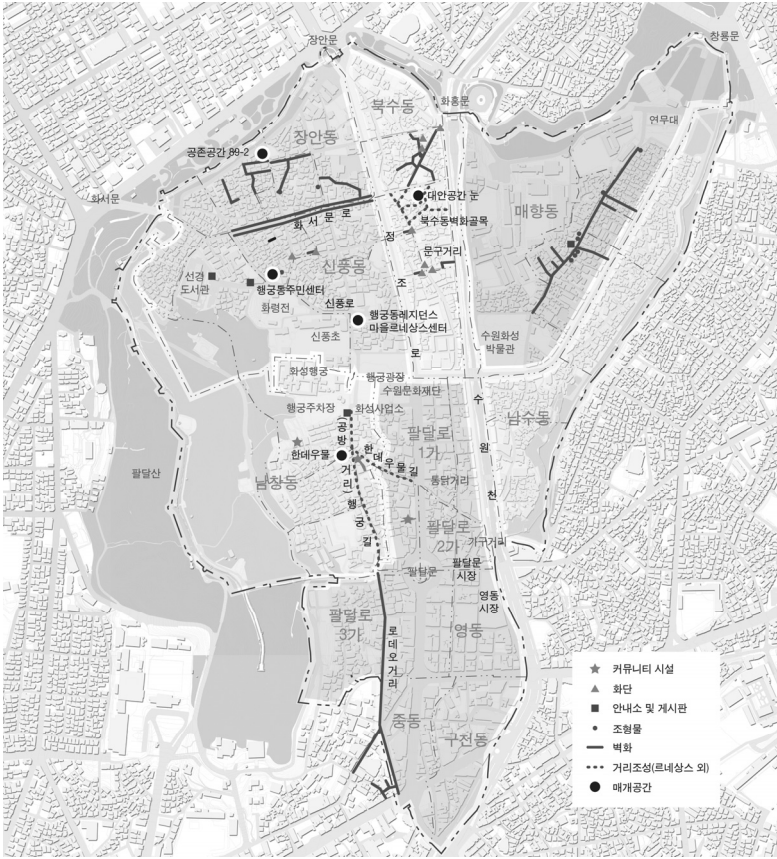
표9-계속

공동체 발달 단계	마을만들기 내용	해당 공동체	지역공동체 발달 내용
3단계 (준주민자치적 단계)	전시회/문화공연 프로그램	A3-1, A4-1, A5-1, E3	- 마을만들기로 조성된 공간 및 시설의 활성화 - 지역 내 문화서비스 제공
	축제 프로그램	A1-1, A3-1, A5-1	- 시장과 거리의 상품(공예품 등)을 홍보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인쇄 및 홍보물 발행 프로그램	A1-1, A3-1	- 지역의 자원 및 마을만들기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안내지도, 책자, 영상 등의 제작으로 지역가치를 홍보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체험교육 프로그램	A5-1	- 체험팸투어를 진행해 다른 지역주민들의 마을견학을 유도
	혼합 프로그램	B1, E3	- 요리콘서트(체험+공연), 별별예술프로젝트(체험+판매) 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재원 확보 - 아트마켓(체험+판매)으로 재원확보 - 저이용 공간을 활용해 마을에 활력을 줌

제공하였으며, 시장과 거리의 상품을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 이 단계에서는 지역의 자원과 마을만들기 활동을 홍보하고, 마을만들기를 실천하는 다른 지역의 공동체나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체험팸투어를 진행하는 마을공동체도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예술가와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금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혼합프로그램도 요리체험과 공연이 혼합된 요리콘서트, 예술문화 체험프로그램과 판매가 혼합된 별별예술프로젝트·아트마켓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 혼합프로그램의 경우 마을 내 저이용 공간을 활용해 지역에 활력을 주었다.

## 6. 마을 공간 및 시설

시설 및 공간 조성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은 주로 벽화나 조형물을 통한 ‘담장 및 가로구조물 환경 개선’이 대부분이며 쓰레기 투기지역에 화단 및 화분을 조성하는 ‘관목 및 초화류 식재’, 쌈지공원·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커뮤니티 시설조성’, 안내 및 게시판 설치·안내소 환경 개선 등 ‘홍보 및 안내 시설물 설치’ 등으로 나타났다. 공간 및 시설 조성은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다른 곳에서 효과적이었던 방법을 따라



### 도5-지역공동체 발달에 영향을 미친 마을 공간 및 시설

시행하다 보니 프로그램만큼 다양화되지는 못했다.

마을의 시설 및 공간 조성은 가시적인 변화를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활성화 단계나 공동체성 구비 단계에 있는 공동체에 게 마을만들기의 촉매가 되고, 만들어진 시설 및 공간의 사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후의 마을만들기 과정이 디자인될 수 있었다.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및 공간은 아직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유지 및 관리 상태가 양호하나, 일부 운영 주체가 유지관리 역할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경우는 벌써 시설물이 훼손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났다. 한편 시설 및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거나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시공 내용에 대한 반발로 조성한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도 있어 디자인

협의 및 참여 방법에 대한 과제가 나타났다.

한편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외에도 예술가나 단체 등이 조성한 매개공간이 마을만들기 활동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기존의 지역공동체와 새로운 공동체, 지역사회와 외부의 소통매개가 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오래된 기존 주택을 개조해 만든 문화공간인 '대안공간 눈'과 카페 및 게스트 하우스 '공존공간 89-2' 등은 해당 매개공간이 자리 잡은 법정동을 중심으로 벽화 등 환경 개선 프로젝트와 문화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등 공동체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철거 예정된 건물을 지역예술가들을 위한 작업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행궁동 레지던스'의 경우도 지역공동체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지역예술가들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며, 지원센터의 입주로 소통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결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시설 및 공간이 지역공동체, 문화재와 마을을 찾는 방문객, 수원 외부와의 상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시사하는 사례들이다.

마을만들기 이전부터 공동체의 소통공간이었던 '한테우물'의 경우는 남창동 공동체들의 발달에 따라 한테우물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프로그램이 변화하고, 다양한 마을만들기 활동이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매개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동 주민센터도 마을르네상스 이전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던 공간이 마을만들기와 함께 주체들의 교육 및 회의 공간 등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1층 갤러리, 거리무대 등도 공동체의 공연 및 문화 활동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의도된 공간과 시설의 조성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며 변화하는 공동체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V. 맺음말

수원의 도시화는 조선시대 정조의 신도시 건설과 화성축성으로 시작되었고, 이때 수원의 구읍으로부터의 이전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조직의 확장과 구도심의 대규모 인구이탈을 동반한 수원의 도시화 과정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문화재 복원과



관리에 집중된 도시계획이 행궁동 주민들에게 준 상처는 상당했다.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1996년 이후에 수많은 도시계획과 정책이 등장했지만, 문화재와 문화재를 찾은 관광객에 집중해 지역주민에 대한 관심은 나타나지 않았다. 문화재 복원과 관광을 위한 시설조성으로 도시조직이 파괴되고 주거환경의 질도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주택의 보수와 문화재 보호로 침해된 재산권을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특별계획구역의 해지로 문화재를 사람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계획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가 되며 갈등이 드러났다.

행궁동 사람들은 이런 도시계획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지역의 현안 문제를 타파하는 운동으로 갈등관계를 회복하고 거주환경을 개선하려 했으며, 이는 마을만들기의 형태로 등장했다. 활력이 사라진 상점가, 위험한 통학로, 어둡고 지저분한 골목, 문화예술 및 복지서비스의 부족 등의 문제를 지구적으로 해결해보려 했던 마을만들기는 공동체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활동도 있었고, 시민단체의 마을만들기 교육이나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을 연계해 진행하는 활동도 있었다. 이러한 마을의 움직임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목표로 2011년 시작된 민·관 협력형 마을만들기인 수원마을르네상스를 만나 새로운 움직임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마을만들기가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지역공동체의 발달에 어떤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행궁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수원의 정책적 마을만들기 사업인 마을르네상스는 협력적인 거버넌스의 실천과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마을르네상스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었다.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마을만들기를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교육 및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행궁동의 마을르네상스는 기존 공동체의 마을만들기와 만나 지속적인 마을만들기를 통한 마을공동체 발달의 동력을 지원하기도 하고, 새로운 마을공동체 움직임을 형성하기도 했다.

마을르네상스 이전에 행궁동 사람들의 마을만들기는 상인회나 정비사업 취소에 대응하는 대책위원회, 동 소속단체 등 조직력과 역량을 갖춘 공동체에 의한 것이었지만, 마을르네상스의 '교육 및 인큐베이팅'을 통해 마을을 이해하고 애착심을 가지는 많은 주민공동체가 발굴되었고, 마을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역량을 강화했다. 또 공모사업 자체도 훌륭한 교육의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마을교육이 초기 단계에 집중되어 발달된 공동체의 단계에 적합한 교육 및 인큐베이팅이 과제로 나타나기도 했다. 마을르네상스 이후에 행궁동의 '마을조직 및 네트워크'는 확대, 세분화, 연계 등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지금의 공모사업 형태의 마을만들기가 계속되면 마을조직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인데 준자치단체 적 지역공동체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지역단위에서 상호 지원 및 연계 피드백이 용이한 협의 네트워크 구성을 고민해야 한다.

마을르네상스에서 마을교육의 프로그램이나 공모사업 진행에 주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마을 워크숍'은 마을만들기의 과정 안에서 각 단계별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였고 다소 전문성을 요하는 워크숍 내용이 많아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진행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마을홍보'는 마을르네상스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부분 중 하나이다. 마을르네상스 이전부터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스로의 공동체 문화를 가지고 있던 마을을 다른 곳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 과정을 통해 마을조직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마을에 대해 깊은 애착을 가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것은 마을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피드백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 내용을 소식지로 만들어 발신하거나 축제나 전시를 통해 알리는 일은 마을만들기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마을 프로그램'과 '마을 매개공간 및 시설'은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 자체로 참여의 목적 및 공동체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가지기도 했다. 축제를 비롯한 마을 프로그램들은 잃어버린 공동체 문화를 다시 찾게 하였고, 공간 및 시설의 조성은 주민들이 직접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 마을의 프로그램과 연계된 공간이 주민들 간, 관광객과 주민, 또 다른 외부와의 소통의 매개공간이 되기도 했다. 한편 운영주체가 없어 관리되지 않던 마을 공간 및 시설의 문제가 마을 프로그램 및 마을조직을 통해 해결되는 모습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나타났다.

수원의 마을르네상스도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마을르네

상스가 공모사업에 집중되어왔다면, 최근에는 마을계획단을 통해 마을계획이 도시계획의 기초적인 틀을 이루는 모델을 만들고, 마을만들기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마을계획의 지원과 추진으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향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협의회와 마을만들기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자치공동체로서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수원의 도시화 과정과 도시계획에 대응한 마을만들기, 이 마을만들기가 지역공동체 회복에 미친 영향과 과제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곽현근, 「동네자치체를 위한 동네거버넌스 형성의 방향과 과제: 영국 동네거버넌스 제도 실험의 교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2.
- 김찬동,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 송창용·성양경,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THE HRD REVIEW』 여름호, 2009.
- 신명호, 「도시공동체운동의 현황과 전망」. 한국도시연구소 편, 『도시공동체론』, 한울아카데미, 2003.
- 신에철, 「지역만들기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역량이 지속적 참여와 참여확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역만들기공동체와 지역문화활동공동체의 역량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신중진·정지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역할과 과제: 수원화성과 행궁동 사람들, 갈등에서 상생으로의 도전」. SSK 도시지역공동체 연구팀, 『한국의 도시지역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현실, 운동, 과제』 학술회의 자료집, 2013.
- 신중진·송승현,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추진주체의 관계구조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권 1호, 2010.
- 신중진·신효진,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주민의 역할변화에 따른 지원방안 연구: 서울 독산3동 마을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권 10호, 2010.
- 여관현, 「마을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성장과정 연구: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6집 1호, 2013.
- 이영아 외, 『시민참여형 도시정비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방안』. 국토연구원, 2008.
- 이재준, 「마을르네상스 기본계획」. 지속가능한 수원형 마을만들기 모델 구축을 위한 마을르네상스 포럼 자료집, 2011.
- 정규호, 「한국 도시공동체운동의 전개과정과 협력형 모델의 의미」. 『정신문화연구』 35권 2호, 2012.
- 조명래, 「지역공동체와 지역정체성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과 과제」. 국토연구원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공동체 형성전략 모색 토론회 자료집, 2007.
- 최병두, 「공동체 이론의 전개과정과 도시공동체운동」. 한국도시연구소 편, 『도시공동체론』, 한울아카데미, 2003.
- 황익주, 「골목길과 광장 및 공원: 도시에서의 '우리 동네' 형성에 관한 인류학적 에세이」. 『건축』 49권 1호, 2005.

Mattessich, P. and B. Monsey, "Community Building: What Makes It Work,"

Saint Paul, Amherst H. Wilder Foundation, 1997.

- 『마을공감 골목에서 소통하다: 수원 마을르네상스 이야기』. 수원시, 2013.
-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국토연구원, 2013.
- 『수원시 도시계획 200년사』. 수원시, 2009.
-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원시, 2009.
- 『2011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최종결과보고서』. 마을르네상스센터, 2012.
- 『2012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최종결과보고서』. 마을르네상스센터, 2013.
- 『2013 마을계획단 운영에 따른 팔달구 마을조사 및 예비계획 수립』. 마을르네상스센터, 2011.
- 『2021 수원 마을르네상스 기본계획』. 수원시, 2011.

마을르네상스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maeulcenter>).

마을르네상스센터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aeulrecenter>).

마을르네상스센터 홈페이지(<http://www.maeulcenter.or.kr>).

통계로 보는 수원(<https://stat.suwon.go.kr>).

## 국 문 요 약

행궁동은 조선시대 정조의 신도시 건설과 화성축성으로 만들어진 도시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조직의 확장과 구도심의 대규모 인구가 탈을 동반한 수원의 도시화 과정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문화재 복원과 관리에 집중된 도시계획이 행궁동 주민들에게 준 상처는 상당했다. 행궁동 사람들은 이런 도시계획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지역의 현안 문제를 타파하는 운동으로 자신들의 상처, 갈등관계를 회복하고 거주환경을 개선하려 했고, 이는 마을만들기의 형태로 등장했다.

이러한 마을의 움직임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목표로 2011년 시작된 민·관 협력형 마을만들기인 수원마을르네상스를 만나 새로운 움직임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마을만들기가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지역공동체의 발달에 어떤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행궁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수원의 정책적 마을만들기 사업인 마을르네상스는 협력적인 거버넌스의 실천과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마을르네상스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공모사업, 교육 및 교류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마을만들기의 동력을 지원하기도 하고, 새로운 움직임을 형성하기도 했다.

행궁동 내에는 ‘참여활성화 단계’, ‘공동체성 구비 단계’, ‘주민자치적 단계’ 등 서로 다른 발달과정을 거치고 있는 마을공동체들이 존재했고, 이들은 각각 다양한 마을만들기 활동을 전개했다. 그 마을만들기 활동 안에서 ‘교육 및 인큐베이팅’, ‘마을조직 및 네트워크’, ‘마을 워크숍’, ‘마을홍보’, ‘마을 프로그램’과 ‘마을 매개공간 및 시설’ 등 공동체 발달에 영향을 미친 마을만들기 요소들을 추출할 수 있었고, 각 요소들이 마을공동체의 발달 단계마다 미친 영향과 과제들은 앞으로 마을만들기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다른 도시들이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투고일** 2013. 10. 11

**심사일** 2013. 11. 10

**게재 확정일** 2013. 11. 15

**주제어(keyword)**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 마을만들기(Maeul-mandeulgi), 수원마을르네상스(suwon-maeul-rennaissance), 행궁동(haenggung-dong), 공동체 회복(community rebuilding)